라면, "기생자라고 하는 이상은 기생에 의존하고, 기생(寄生)의 생활력의 잉여를 이용하여 생활해 가는 것"쯤으로 풀이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얹혀사는 것도 한 가지 사는 길임에는 틀림 없다. 벌레가 나무에 얹혀 살듯.

남에게 얹혀사는 벌레를 기생충이라 한다. 그런데, 더욱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하며 불쌍한 것은 사람의 기생주의이다. 넉넉히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하지 않고 남에게 붙어 기대사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라도 기생충 밖에 되지 못한다.

(필자=한국일보 논설위원)

<토막상식>

6살의 女兒가 팬티에 누런 냉이 묻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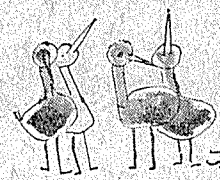
어린 소녀라도 냉이 있고, 아랫도리가 젖는 일은 흔히 있다. 무엇보담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른이나 매한가지로「트리코모나스」,「간지다」, 세균 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변검사를 하여 요충이나 회충이 있나도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지어 먹어야 한다.

아랫도리는 청결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어야 하며,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뒤를 보고 나서 항문쪽에서 앞쪽으로 씻지 않도록 일러 주어야 한다. 또 가렵더라도 긁거나 부스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어머니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냉이 있을 때는 먼저 그것도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外誌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박 근 자

삼라만상도 존재이유는 있다고 한다. 길의 쓸모 없어 보이는 돌 한개도있어 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기생충 이라고 존재 이유가 없을리 없는 것이 아닐까.

의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내가 기생충의 존재 이유를 더구나 알 까닭은 없으나 양약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극약의 적당량이 양약이 되어진다는 상식에 준해 보더래도 기생충도 지나치게 많거나 그놈이 자기신분을 망각하고 주제넘게 활기칠땐 인체에 해를 가져오지만, 그「적당량」이라는 한계와 올바른 길만 찾아, 다시말해 막혀서 고생하든 내부의 통로를 뚫어 준다던가 하는 혹은, 그들의 배설물이 어떤 작용으로 퍽 약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

는 없는것일까?

무의도식, 누군가에 빌붙어 제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기식가라 부른다. 그러나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마련이다. 기실 쟁쟁한 지위를 차지하고 얼핏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속에 기생충 같은 족속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이 없겠으나 남의 단국물만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부귀영달만을 꾀한다면 그것도. 기생충이 아닐런지.

기생충의 존재이유와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던간에 인간의 체내속의 기생충이나 몸밖 사회의 기생충이나 간에 그 수는 그 국민의 민도(民度)의 바로메—다로 측정되어지는성 싶다.

후진성의 표본 같은 것이 아닐까 해서이다.

사실 나의 친정외가댁은 몇대를 이어 내려오는 의사 집안인데 그중엔 초대 여의사님도 계셨다. 내가 소녀시절 은퇴하신 노여의사님인 고모할머님은 그의 의학도 시절의 희비극과 로맨스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중엔 물론 기생충얘기를 빠뜨릴 수 없다. 지금 살아계시면 아흔살도 넘을 연세이니, 그분의 20대 우리 백성들 몸속엔 그야말로 기생충의 소굴이였든가보다. 시체해부 시간에 본 그 엄청난 기생충과 그것을 며루치라고 부르던 교수의 말로해서 나의 고모 할머니는 평생 며루치를 잡숫지 않았었으니, 그러니 존재이유야 어찌 되었든,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오늘도 엽록소푸성귀를 흐르는 물에 씻고 또 씻으며 그리고 웬만한 약에는 면역이 되었을 기생충을 생각하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노이로—제에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본다.

<필자=女流畫家>